

합격기
(2013년(제55회) 사법시험 합격)

Believe in Yourself



차 승 균

- 서울 신목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 법대 졸업
-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합격

I. 들어가며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항상 꿈꾸던 연수원에 입소한지 2달 정도나 지났을까, 고시계에서 합격수기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막상 수기를 쓰려니 남들보다 탁월한 공부법이나 실력을 갖추지도 못한 제가 과연 이런 것을 쓸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공부를 할 때를 생각해 보니 합격자들의 작은 한마디에서 힘든 수험생활을 버티나갈 용기를 얻던 기억이 떠올라 이렇게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수기를 쓰려니 2차 합격자 발표일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합격소식을 전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점차 줄어가는 중이라 올해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예전보다 힘든 문턱에 서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린다고 했듯이 이 글을 접하실 수험생들 모두 스스로를 믿고 고된 수험생활을 이겨내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II. 제1차 수험기간

저는 대학교에 들어와 법학과에 입학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사법시험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2009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준비를 시작하고 이태섭 강사님의 민법강의를 듣기 시작했으나, 대학교 저학년 때 법과목과 담을 쌓고 살았던 관계로 사실상 비법학도나 다름이 없었던

저는 강의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고 결국 도중에 강의는 포기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때부터 학원 강의에 대해 약간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시각 때문에 1차 준비는 일반적인 과정과는 다소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해 3월 무렵부터 신림동 강의 일정에 맞추어 민법, 형법, 헌법 기본서를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수험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를 듣지 않는 관계로 그 시간을 기본서를 보는데 더 할애할 수 있었기에 기본서를 보다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월 정도까지 기본 삼법 기본서를 모두 읽은 뒤, 7월부터는 판례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다소 요령이 없었기에 판례의 중요도라던가 하는 것에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고 다소 미련하게 읽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9월 정도까지 판례집을 다 보고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는 각 과목별 기출문제집을 한번 씩 풀어보았습니다.

12월 중순에 접어들어 8-4-2-1을 시작했으나 단권화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어떤 책으로 마무리를 할지도 정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던 관계로 다소 미흡한 상태로 첫 시험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다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여 어느 정도의 기대는 있었으나 나중에 결과를 보니 커트라인과 대략 평균 5점 정도의 차이로 낙방하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저렇게 체계도 없이 공부했음에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점수가 나온 것이 기본서를 굉장히 꼼꼼히 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첫 1차 시험을 낙방하고 시작된 2010년 2년차, 개인적인 사정으로 8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지 못하고 9월 쯤에 들어 공부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첫 해와는 약간 다른 이유지만 이 때에도 따로 학원 강의는 듣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기본은 쌓였다고 생각하여 1년차 때의 문제점들을 고치는 데에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 9월 처음에는 기본서를 읽으며 이미 출제된 지문이나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 위주로 모두 표시를 하여 두고 기본서를 읽은 뒤에는 기출문제를 풀며 제가 정확히 아는 지문과 잘 모르는 지문을 구분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이 때에는 첫해와는 달리 저만의 방식으로 단권화를 하는데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에는 기본서에 수록되지 않은 판례가 출제되어 틀리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과 9월에 공부를 시작한 관계로 판례집까지 본다면 올해도 작년 처럼 마지막 정리가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례집은 모두 생략하였습니다.

특히 첫해 민법에 다소 까다로운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민법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다.’와 같이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예외적인 사유는 언제든지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꼼꼼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2월 말부터

8-4-2-1을 시작했고 이때에는 보다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쳤기에 무사히 진도를 마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온 느낌도 첫 해와 달리 괜찮았고 결국 2011년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Ⅲ. 제2차 수험기간

1차를 준비할 때는 거의 학교에서 준비를 하였는데 아무래도 2차는 신림동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2011년 3월 처음으로 신림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초시 때에는 후사법의 생소함으로 인한 어려움과 1차 때와는 다른 기본 삼법의 접근방식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비순환을 듣기는 하였으나, 진도를 따라가기도 벅찼고 학원 모의고사도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맞은 첫 2차 시험, 시험장에 입장하여 시험지를 받아들이고 무엇을 써야할지 막막한 상태로 뭐라도 써내려가려 했으나 부족한 실력 때문에 시험은 무의미하게 지나갔고 점수에 대한 특별한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시를 마치고 시작된 재시, 이 때에 가장 큰 좌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초시를 치른 사람들은 하다못해 기본 삼법은 어느 정도는 썼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거의 손도 못 댄 상황이라 많이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사법시험을 시작한 것에 약

간의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했기에 7월부터 시작된 1순환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학원을 다녀도 그냥 학원 진도에 맞추어 그날 나간 진도만 복습하는 정도의 공부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에 들어 불합격자 성적이 공개되었는데 결과는 7과목 전부 과락,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결과로 보니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때는 시험장에서의 좌절과는 달리 약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재시에 떨어지더라도 억울하지 않도록 마지막 노력은 다해보고 떨어지자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잡고 이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2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예비, 1순환 때의 부족한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 모의고사만을 보고 따로 강평은 듣지 않았습니다.

2순환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단권화를 하며 공부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시윤 교수님의 기본서에 박승수 변호사님의 사례집을 보았고, 특히 사례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풀이 구조는 모두 포스트잇에 가필하여 기본서에 옮겨두었습니다. 상법은 김혁봉 강사님의 상법신강과 사례집을 보았고, 행정법은 박균성 교수님 기본서에 박정훈 교수님의 사례집을 보았습니다. 행정법 역시 사례집에서 중요한 문제풀이 구조는 가필하여 기본서에 옮겨 두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저는 신이철 강사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이재상 교수님의 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 신이철 강사님

의 자료집에는 수험에 있어 다소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 식으로 각각 다 장단점이 있어 단권화에 가장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재상 교수님 기본서를 기본으로 한 뒤, 이재상 교수님 사례집, 신이철 강사님의 자료집, 정주형 강사님의 최종정리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추려 제본을 하여 찾아봐야 하는 부분을 간략히 기본서에 표시해두는 식으로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헌법은 보통 김유향 변호사님의 300으로 정리를 많이 하는데 저는 마지막에 정희철 변호사님의 사례집으로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300의 내용을 사례집에 가필해 두었습니다. 기본권 파트를 예로 들면 평등권이 나오면 평등권의 이론 부분은 맨 처음 나오는 한 부분만을 체크해두고 다른 평등권 부분은 사안의 경우만을 체크해두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니 가독성은 유지하면서 양도 많지는 않아 오히려 300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법은 이인규 강사님의 수업을 들었으나, 단권화에 수월해 보이는 이재상 강사님의 기본서와 사례집을 보았습니다. 다만, 이재상 강사님의 책에 다소 부족하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은 이인규 강사님의 책에서 가필해서 옮겨두었습니다. 민법은 특별히 강의는 듣지는 않고 노재호 판사님의 민법교안을 보았습니다. 민법교안은 이론부분과 사례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험 직전에 볼 때의 효율성을 위해 사례부분은 이론내용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부분만을 표시해두어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

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2순환은 주로 단권화를 가장 중점에 두어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작된 3순환에는 암기에 가장 초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학원에서 강사님들이 말해주는 두문자 뿐 만 아니라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판례들은 모두 두문자를 따두어 가급적 원문 그대로 답안에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헌법의 기본권은 누구나 거의 완벽하게 서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두문자를 따서 어떤 내용이 나오던 이론은 막힘없이 써내려가고 그 후에 포섭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암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순환 때에는 단권화에 치중하느라 잘 살펴보지 못한 사례집들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2순환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한 덕인지 3순환 때부터는 기존에 바닥 치던 모의고사 점수가 서서히 중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을 좀 회복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모의고사가 3순환부터는 전반적으로 배점에 비해 과도한 쟁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문제도 어렵고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기도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제가 다닐 때에도 3순환부터 답안제출자가 확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답안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답안을 완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경우에는 특히 시간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는데 좀 틀리거나 부족한 답안이라도 무조건 제

출해서 채점을 받다보니 3순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4순환부터는 학원 모의고사도 보지 않고 독서실에 나가 단권화된 기본서로 4-2-1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독수가 늘어나며 보았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아함에도 다시 볼 때마다 항상 새로운 책을 보는 느낌이라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 찾아오는 불합격의 느낌에도 초시 점수를 받아들이며 다짐했던 마음을 되새기며 다행히 4-2-1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두 번째 2차 시험은 예년과는 달리 약간은 긴장한 상태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초시와는 달리 진지하게 시험을 치고 마지막 민법을 마쳤고, 나오는 순간에는 시험이 끝나서 정말 다행이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설사 떨어지더라도 노력했으면 그걸로 할 바는 다 했다고 생각하며 지냈으나, 막상 발표일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오니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 전날, 떨리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기다려 명단을 열어 체 이름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합격소식을 전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IV. 제3차 면접

눈치가 좋으신 분들은 저의 2차 합격 시기와 최종합격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는 것을 눈치 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 면접에서 3차를 탈락하고 2013년 면접에서 최종합격을 하였고 비교적 면접에 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면접에 관해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면접에서 첫 시간은 50분에서 60분 정도 집단토론을 하게 되는데 저희 조는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찬반의견을 논하는 것이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보통 한명이 3번 정도의 발언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 주제에 대해 잘 아는 내용이다 싶으면 먼저 빨리 발표를 하는 것이 좋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들으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뒤에 보충적인 발표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단토론을 마친 뒤에는 개별면접을 하는데 대략 한명이 5-15분 정도 면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별면접에서는 법학지식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냥 신상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이걸 면접위원이 어떤 분야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심층면접은 일반면접과는 달리 5분의 면접위원이 돌아가며 면접자 한명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략 30-40분 정도 진행되는 것 같은데, 사실 들어가면 굉장히 긴장해서 아는 내용도 제대로 대답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심층면접에 가지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보다는 각 과목에서 기본적인 내용의 의의나 간단한 민사사례 정도를 묻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면접위원님이 바뀌면 묻는

내용도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V. 마치며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다소 특이하다면 특이한 수험생활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연수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금도 가끔씩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그 힘든 순간에도 부족한 아들을 믿어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부모님,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광운대학교 교수님들, 그 외에도 제가 공부할 때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준 친구들 모두가 생각이 납니다. 저 혼자서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런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있을 수 있었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 자리에 섰고, 이제는 제가 받은 것을 남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제목으로 써둔 'Believe in Yourself'는 제가 공부하다 힘들 때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던 말입니다. 특히 2차 준비 과정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저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될 수험생 여러분들도 자신을 믿고 합격의 기쁨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어 부족한 제 합격수기를 읽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과 지면을 빌려 주신 고시계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